

 호인: 히익
두려움!

 Kaming (GM): 흑 원하시는게 있으신지?

 호인: 흠...
카밍님이 떡밥풀기 편하게 해야하는데
시점은 언제쯤으로 시작할생각이신가요?

 Kaming (GM): 요번 플 사건 이전이음

 호인: 사건 이전이면...
띠요옹
생각나는 장면은 없군요!

 Kaming (GM): 그렇군요!

 호인: 이번엔 사쿠야랑 이야기를 해볼까...
특대인원들이 지키고있지만
일행들이 번갈아가면서 가보는거루
호인이 백수니까

 Kaming (GM): ~스~

 호인: 호인이 가장 자주 가고
두사람 학생
한명은 스텐트맨
호인 백수

 Kaming (GM): 백수 호인이..
스고이

 호인: ㅠㅅㅠ
백수데수

 Kaming (GM): 그러면
안약넣고
시작해볼까요
두둥!

 호인: 눈 괜찮으신가요ㄷㄷ

 Kaming (GM): 다이쵸부다 몬다이나이

 호인: 최선을 다해보죠
자 RP를 짜내라 내 머리야
@뇌 : 싫다
뇌 : 거절한다!!!

 Kaming (GM): ㅋㅋ
=====
한가로운 오후입니다.
백수의 왕 ..아니 호랑이 호인은 뭐하고 잇으려나요.



호인: 근질거리는 몸을 주체못하고 또 꼬리랑 귀 안가리고 도시를 거닐겠습니다
 옥상에서 옥상으로
 건물사이를 뛰어넘으며 초상사건이 일어나진 않나
 곤란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
 그런걸 보고있따가
 높은 빌딩의 옥상에 잠시 멈춰서 아래를 바라보겠네요



호인: 우연히도 퇴마협회 건물이라고 합시다
 (빌딩이 아니려나



Kaming (GM): 퇴마협회건물은 일본식 건물이 많거든용
 호인이 묵고있는 숙소도 전통 일본식 건물이종



호인: 흠터레스팅
 그럼 퇴마협회 건물 입구앞에서 멈춰설거같습니다
 "정말 뒤에 씌인거같군...오히려 부자연스러울정도의 평화로다"
 @라는 감상을 늘어놓으며 말이죠



Kaming (GM): 그럼 호인은 익숙한 뒷모습이 그 건물에 들어가는걸 보겠네요.



미츠키기 아야네: "..."



호인: "아야네...?"
 @잠시 생각하다가 아야네를 뒤쫓아가봅니다
 "우연이구나"
 @대놓고 말검



미츠키기 아야네: "어라? 호인님이시군요">@잠깐 놀란듯



호인: "그리 놀랄일이더냐"
 @싱긋 미소지어 보이죠



미츠키기 아야네: "갑자기 말을걸면 누구든 놀랄거예요"
 @후훗
 "이곳에 어떤일이세요?"
 @가웃



호인: "산책을 하다 아야네의 모습이 보여서 들렸느니라"
 "어린나이에 고생이 많구나"
 "듣자 하니 아야네는 수장대리로써 퇴마협회에 몸담고있다고 하지 않았더냐?"



미츠키기 아야네: "아뇨. [총수대행]으로써 열심히 해야죠"
 "네 아버님의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.."
 @걱정스러운 표정



호인: "저런...용태가 어떤지 자세히 아는바가 있느냐



미츠키기 아야네: "자세한 원인은 모르겠어요. 단지 의식을 잃으셨다는것만.."



호인: "의식을 잃었다..."
 "주변에선 별말 없었느냐"



미츠키기 아야네: @끄덕

"그래도 곧 일어나실꺼라 믿고있어요"

"저희 아버지는..강하시거든요"



호인: @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...

"그래 아야네가 굳게 믿고있다면 하늘도 그에 응해줄것이니라"

"도울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거라 아야네"



미츠키기 아야네: "네 고마워요"

"그건 그렇고 이곳에 오신김에 서자님의 소식 듣고가시겠어요?"

"이곳은 전국에 있는 퇴마협회들의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여서"

"서자님의 소식도 분명 있을꺼예요"



호인: "반가운 소식이로구나 그럼 조금 신세지마"



미츠키기 아야네: "그럼 따라오시지요"



호인: @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로 아야네 옆에서 걸어갑니다



미츠키기 아야네: 라며 호인을 안내합니다.

그렇게 호인을 안내해서 들어가면

수많은 서류들이

하늘을 날아다니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서류들을 분주히 잡아 정리하고있네요.



호인: "흐음...바쁜곳에 괜히 찾아온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"



미츠키기 아야네: "괜찮아요. 언제나의 일이니까요"

"흠 그러면 호인님이 제일 궁금해 하실 서자님의 소식부터 알아보까요"

@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한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듯

그리고 하늘에 손을 뻗자

서류가 날아와 아야네의 손에 잡히는군요



호인: @신기하다는듯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



미츠키기 아야네: "역시 있네요"

@웃으며

"어디보자... 호오"

"교토근방에서 다른 동료들과 초상현상을 멋지게 해결했다는 소식이네요."

"최근들어 역시 하사시로 말고 다른곳에서도 초상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있는것 같네요"



호인: "서자...분발하고 있구나..."

@작게 미소짓다가...

"역시 이곳에서만뿐 아니라 점차 확산되고 있는가 보구나"



미츠키기 아야네: "네 원인은 불명이지만.... 초상사건이 확실히 늘었어요"

@날라다니는 서류들을 바라보며

"이렇게 바쁜것도 전국에서 날아온 초상현상사건에 대한것들때문이지요"



호인: "퇴마협회와 특대에서의 대응은 어떠하느냐?"

"이정도라면 그들도 깨달았을터"



미츠키기 아야네: "있는것 없는것 다 하고있지만 역시 인력이 제일 부족하네요."

"가끔 활동을 중단하신 분들도 도와주고 계시지만.."

"아예 잠적한 분들이 더 많은 추세라.."

"다행히 아직까지는 대응이 따라가고있습니다만.."

@걱정스러운 표정



호인: "...잠적...이라...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한번 맛본 평화를...버리긴 힘들겠죠"

"그들을 탓하진 않아요..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니까.."



호인: "그럴수도 있지..."

"기우였으면 좋겠다만 만약 그들의 의지로 잠적한것이 아니라면..."

"괜한 지레짐작은 그만둬야겠군"

@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



미츠루기 아야네: "그리고..최근 또 흥흥한 정보가..하나"

@손에 탁 서류가 또잡힙니다.



호인: "음?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최근 일반인들이 '카미가카리'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요..."

"조사중입니다.

"아 서자님도 이 사건 용의자들을 쫓고있나보네요."

"교토근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서자님팀도 용의사 수색에 동참한듯해요"



호인: "피해 규모는 알수 있겠느냐"

"신살자가 그릇이 빈 생명을 공격하다니...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작은 산골마을사람들 전원이군요"

"보고서에 의하면.."

"'다수의 카미가카리들이 하룻밤만에 마을을 초토화시킨후 도주' 라고 써있네요"

"하룻밤만에..그 마을은 유령마을이 되버렸구요.."



호인: "..."

@호인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

"힘을 가진자들이 유약한 생명들을..."

"그것도 사신도 이성을 잃은 아귀도 아닌 평범한 생명들을...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네..참담한 일이네요"



호인: "서자가 그들을 쫓고 있다고 하였느냐?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네"



호인: "교토 근방이라..."

"사쿠야의 일만 아니었다면 나도 함께 하였을텐데..."

@답답한듯 팔짱을 끼고 끄응...ㅎ합니다



미츠루기 아야네: "교토는 저희 퇴마협회의 본가가 있는곳이기도 하니..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"



호인: "우리 십이지는 유약한 어린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단다 아야네 눈앞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냥 둘수 없게되지..."

"하지만 서자를 믿고있기 때문에..."

"서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않을것이야..."

"해야하는 일이 있고말이다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훗 그렇군요"

"일단 중요한 정보는 이정도 이려나요"

@서류를 다시 던지며



호인: "보호중인 사쿠야의 상태는 어떻느냐?"



미츠루기 아야네: 서류들은 다시 날아갑니다.

"네 영맥의 힘도 점점 안정되고있고 사쿠야씨 본인의 말로도 이제 조금남았다고 하시네요"

"아무일없다면..이제 곧 다시 영맥으로 돌아가시지 않을까.."

"조금..쉴수해지려나요?"@웃음



호인: "다행인 일이지만 오히려 불안해지지는구나"

"그 눈을 수집하는 녀석..."

"분명 사쿠야를 찾고있었다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그렇죠... 누군가가 사쿠야씨를 노리고있는건 분명해요."

"그러니 저희는 만전의 태세로 사쿠야씨를 호위해야하는거예요"

@기합

"주변의 사건들도 신경쓰이지만..일단 저희 눈앞에 있는 일이 중요하니까요"



호인: "늬름하구나 아야네"

@작게 웃어보인뒤

"혹시 모르니...난 시로에게 가봐야겠구나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아 사쿠야씨의 수호수라는..?"



호인: "그렇단다 그가 상태를 회복한다면 큰 전력이 돼줄것이다"

"마침 사쿠야의 힘도 점점 안정돼간다니..."

"안부도 전해줄겸 가야겠구나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뵈요. 저도 마침 할 일이 있어서"



호인: "아야네"

"전에도 말했듯...혼자서 너무 부담가지지 말거라"



미츠루기 아야네: "...네 고마워요 호인님"

@살짝 웃어보이며 아야네는 작별인사와 함께 사라집니다.



호인: @호인도 적당히 인사하고

오랜만에 과일주 몇개를 집어 들고 시로에게 갑니다



미츠루기 아야네: -----

-오래된 인사-



Kaming (GM): 시로가 호인인줄 알고 결계를 풀어 호인도 쉽게 들어올 수 있었네요.

시로: "이건 오랫동안이군.."

@거대한 흰뱀이 꼬리를 들고 호인을 바라봅니다.



호인: "사쿠야의 안부도 전해줄겸 선물을 들고왔다"

@과일주 몇병을 흔들어보입니다

"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"

시로: "호오..?"

"이 모습으로는 조금 힘들겠군..잠시 기다려라"



호인: @그말에 자리에 앉아 잔을 따르기 시작합니다



Kaming (GM): 거대한 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..



시로: "기다리게했군"

@웬 미청년이 다가옵니다.



호인: "문제없다"

@청년에게 따른 잔을 건네줍니다



시로: "별로 놀라지않는군?"@잔을 받아들며



호인: "하하..."

"오래 살면 이런저런걸 많이 보게 되는법이지"

"실제로 사쿠야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?"

"초상현상만 해도 이변의 연속인데 이정도에 놀랄리가 만무하지"

@짖궂게 웃습니다



시로: "흠 그렇군"@잔을 훌쩍



호인: @호인도 잔을 들이키며 이야기를 합니다

"그래 회복하면서도 사쿠야의 상태가 느껴지더냐?"



시로: "물론이다. 나랑 공주님은 이어져있기때문에 떨어져있어도 어느정도 확인은 가능하다."

"많이 회복하신듯하군 덕분이다. 감사를 표하지"



호인: "여러 생명들이 힘을 합한 결과이고 결국 누군가는 부담해야만 하는 짐이었다"

"이쪽이야말로 초면에 그리 대한것은 사과하마"

"이렇게 성가신일이 될줄은..."

"그녀는 확실히 호전되고있다..."



시로: "아니. 그때 나도 정상은 아니었지. 연속되는 전투에 머리가 제데로 돌아가지않았다."

"사과하지"

@구벽



호인: "그리고보니 오랜 싸움에 피로한 상태였더구나"

"모노노케들이 왜 그렇게 너에게 달려든건지 원인을 파악해봤느냐?"



시로: "정확히는 공주님을 노린것이였지.."

"모노노케들이 영맥의 민감한것은 당연하나... 그정도로 몰려오는것은 역시 비정상이었지"

"잘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조종당해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"



호인: "...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수도 있지만 시로 너는 알아둬야 할거같아 이야기하마..."

@과일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보다가 말을 꺼냅니다

"그녀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않다"

"최근엔 아라미타마까지 습격해오더군"

"그녀의 위치까지는 모르는듯 했으나..."
"그정도로 강대한 사신까지 난입해올줄이야"



시로: "흐음..요전에 도시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그때문이었던가.."



호인: "그렇다"

"회복에 집중하는 너를 위해 여러가지 이야기 해주고싶어 이리 찾아온것이다":



시로: "그대들에게 또하나 빛을젖군..."



호인: "빛이라..."

"시로 최근 근처에 인간이 아닌것들의 기척을 느낀적이 있느냐?"
"모노노케 몇몇이 두려운듯한 움직임을 보이더구나"



시로: "흠 듣고보니 그런듯하구나."

"하지만 걱정말게. 이 곳의 결계는 그전과같이 허술한것이 아니니.."
"모노노케들은 얼씬도 못할테니"



호인: "그건 다행이구나..."

"하지만...모노노케가 아니라면..."
@다 비워진 잔을 보며 말합니다
"사쿠야를 노리는 인원은 사신뿐만이 아닌거같다"



시로: "내몸을 걱정해주는건가?"

@잔을 따라주며



호인: "물론이다"

@받아드립니다



시로: "이미 그대들에겐 공주님을 맡긴몸. 내 몸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."

"만약"
"이 몸이 없어지더라도... 그대들이 있기에 안심이다."



호인: "...시로...너는 분명 충신이나...그런말을 들으면 사쿠야가 슬퍼할것이다"

@시로의 잔을 마주 따라줍니다
"사쿠야는 시로 너를 굉장히 아끼는듯 보였다..."



시로: "훗..."

"연옥의 밤..이라고 그대들 사이에서는 불리우던가.. 그 일이 있기전에는 다른 수호수들과 공주님을 모셨지.."
"하지만 그 날 이후.. 남은 수호수는 나뿐이라네..."



호인: "..."



시로: "내 유일한 걱정은..."

"나마저도 없어진다면 공주님은..외톨이가 되버릴걸세.. 그것이 두렵다네 나는.."
@잔을 흔들며



호인: "시로...오랜 세월동안 사쿠야를 보필한 그대를 무시하는것은 아니다"

"그러나...지금 그대가 우리에게 사쿠야의 신변을 맡긴것처럼..."
"그대도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괜찮을것이다"
"아니"
"함께 싸워나가자"

@잔을 듬니 ㅏ ㄷ



호인: 다

"절대 그리 두지 않을터이니"



시로: "함께 싸우자..인가..종군"

@잔을 듬니다.



호인: @두 잔이 살짝 부딪쳐 올리면 그것을 단숨에 들이킵니다



시로: @들이키며

"고맙군 덕분에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야"

@살짝 웃음지으며



호인: "다행이구나"

@호인도 마주 웃습니다



시로: "호인..그대 만약 우리 수호수를 모두 불태워버린 그 날의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관련되어있다면.."

"앞으로 더욱더 힘든 시련이 그대들 앞에 나타날걸세.."



호인: "시로...너와 다른 수호수들이 사쿠야나 다른 영맥들을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지키려고 한것처럼..."

"나...아니 우리역시 그 거대한 시련앞에 맞설것이다"

"우리는 바위요 나무이며 산이다"

"바람에 맞설것이야"



시로: "훗 그말을 들으니 안심이되는군."

"나도 한시라도 빨리 회복하여 공주님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네"

"그때는 함께 싸우도록하세.."



호인: "그때를 기대하도록 하지"

"어떤 태풍이 오더라도...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돼주는것이다"

"그대와 사쿠야처럼"

@빈병을 회수하고 일어섭니다

"다른일이 없다면 다시 찾아오도록하지"



시로: "아아 오랫동안의 대화라 즐거웠네. 다음에 보도록하지"

@마주 일어서며



호인: @시로에 말해 웃어주며 도시쪽으로 달려나갑니다

에



Kaming (GM): =====

오늘은 이정도로 하지웃

'ㅅ'



호인: 우오오!



악동양반: 시로 잘생겼넹



Kaming (GM): 햄섬가이



악동양반: 갑자기

도원결의같은 느낌이 돼버렸'영